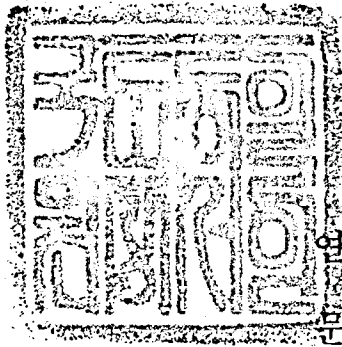


國統調 89-12-150

『인간개조이론』에서 본  
北韓 共產主義 教育方法 分析



1989

연구집필

문용린 (서울대)

최영표 (한국교육개발원)

김성봉 (한국교육개발원)

國土統一院



## 책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北韓이 發刊한 『人間改造理論』 冊子內容의 深層 分析을 통해 北韓住民에 대한 教育方法과 이러한 教育이 北韓 住民들의 人間性 形成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把握하고자 위촉한 特殊課題 研究 結果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共產主義 教育을 통해 北韓住民의 意識 性向이 어떻게 形成되는가 하는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89. 12

調 査 研 究 室



# 목 차

I. 「인간개조리론」分析 研究의 의의 .....	3
1. 연구의 必要性 .....	3
2. 「인간개조리론」 구조 .....	5
II. 「인간개조리론」의 내용 및 비판적 고찰 .....	6
1. 정치사상적 측면 .....	6
2. 교육방법적 측면 .....	8
III. 「인간개조리론」의 비교 고찰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16
1. 비교고찰의 시각 및 관점 .....	16
2. 비교고찰의 문제 .....	18
3. 길러내고자 하는 人間像과 배경 .....	19
4.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의 중요내용과 방법 .....	26
5. 人間改造의 원칙과 방도 .....	46
IV. 사회주의 교육에서의 「인간개조리론」의 위상 .....	68
參考文獻 .....	71



# I. 「인간 개조 이론」 분석 研究의 의의

## 1. 연구의 필요성

196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敎育은 이른바 소비에트식 敎育학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金日成의 주체사상의 방향이 학교 敎育에 스며오기 시작한다. 그 첫번째 예가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양, 敎育하자》는 김일성의 연설(1968. 3.14)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적”인 敎育의 기운은 점차 거세어져 1971년 12월 27일에 김일성은 북한 특유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敎育학」을 창조하여 敎育에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敎育방식은 믿을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북한 고유의 社會主義 敎育학의 정립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이런 지시에 따라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敎育학이 그 운곽을 하나의 두툼한 책자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회주의 敎育학」(평양:敎育도서출판사, 1975)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 敎育학은 金日成에 의해서 창시된 것으로서 《혁명 조정》중에 터득한 경험에 의해 완성된 학문 체계라는 서문을 달고 있다. 모두 11장 29절로 이루어진 이 책은 김일성의 敎育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敎育의 기본원리, 원칙, 敎育과정, 행정조직, 운영, 교사의 의무, 사회·가정敎育 등에 대한 언급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主義 敎育學의 주장이 굳어져감에 따라 敎育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첫째가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29)이며, 둘째가 사회주의 敎育에 관한 테제(1977.9.5)이다. 이 두가지는 金

日成의 주체사상의 교육적 전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강령이며 오늘날 까지도 유효하다.

人間改造 이론은 이 두 지침에 대한 교육학적인 정당화를 시도한 북한 교육학의 본체라 볼 수 있다. 즉 해방이후 40 여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되어온 북한교육의 흐름을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교육 이론서》라 볼 수 있다.

1975년의 「社會主義 教育學」이 주로 김일성의 교육에 관한 어록을 영역별로 분류 정리한, 비교적 덜 체계화된 일종의 《김일성 교육 어록 해설집》의 성격을 갖는데 비해서, 1985년의 「인간개조 이론」은 日成의 어록을 광범위하게 인용은 하였으며, 주체사상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교육의 모습을 이론적, 논리적으로 規明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결국 《인간개조 이론》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원리와 방침》의 결론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개조 이론」에 대한 이해는 북한교육의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창구가 된다. 더욱이 이 「인간개조 이론」은 다른 教育的 文件들이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데 비하여, 북한 전체의 미래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教育의 의미와 지침」을 서술하고 있어서 가히 「북한 교육에 관한 일반 지침서」라 부를만하다. 따라서 이런 중요성을 가진 「인간개조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그들의 교육적 지향성과 현실의 파악을 위한 기본조건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음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인간개조 이론」에 대한 정치, 사상적 및 교육방법적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② 「인간개조리론」의 비교 관찰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③ 「인간개조 리론」의 일반적인 社會主義 교육학적 경향속에서의 위상 검토

## 2. 「인간개조 리론」의 구조

이 책은 4장 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9 페이지에 이른다. 네개의 장 제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간개조의 본질과 社會主義, 共產主義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
- ② 인간개조의 역사적 로정과 중요 과업
- ③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의 중요내용과 사상 개조방법
- ④ 인간개조의 원칙과 방도

이 네개의 핵심적인 주제의 앞 뒤에는 각기 「인간개조 리론」의 특성을 언급한 장문의 서론과 결론이 첨부되어 있다. 서론은 인간개조 리론은 共產主義的 새인간 육성에 관한 완성된 科學的 이론이라는 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결론 부분인 말미에서는 인간개조 리론은 참다운 共產主義的 인간 육성을 위한 유력한 사상 이론적 무기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 Ⅱ. 「인간개조 이론」의 내용 및 비판적 고찰

### 1. 政治·思想的 측면

#### 가. 내 용

「인간개조 이론」에 나타난 교육은 정치·사상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규정된다. 이들은 共產主義的 새 인간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은 또 思想의 개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상의 改造란 바로 인간 개조의 핵심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개조란 “사람들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상의 개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상이 바로 인간 행동의 가장 강력한 영향자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共產主義 社會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다같이 점령해야 하는데,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 더 우선적인 시급성을 갖는다. 이 사상적 요새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집단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주의이다. 집단성과 조직성은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人間改造는 이렇듯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고리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 社會는 자연개조와 사회개조를 모두 수반해야 하는데, 그런 종류의 개조는 인간개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상적 인간개조를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양개조”란 말을 쓴

다. 교양개조는 예컨대, 육체노동을 정신노동에 비해서 비하하는 태도를 교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간개조 이론」이 시사하는 교육의 정치·사상적 목표달성의 수단이 라는 측면은 그 교육 대상에 대한 언급에서 더 잘 보여진다. 人間改造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共產主義 革命의 능동적 주체인 로동계급이다. 이 계급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핵심이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개조는 다른 어느 계급과 계층에 앞서야 한다. 그밖에 勞動階級의 사상개조를 전제로 한 후에 그 다음으로 눈을 돌려야 할 인간개조의 대상은 첫째로 농민들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달리 사적 소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핵’이 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둘째는 인테리들이다.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전문성 때문에 共產主義 건설에 필요하지만 혁명성이 전통적으로 낮다. 셋째 대상은 靑少年들이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떠맡을 예비대이므로 철저히 혁명적 교양을 받아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간개조 이론은 공산주의 건설의 수단으로 규정된다.

#### 나. 비판적 고찰

인간개조 이론에 반영된 教育의 실체는 정치적 목적에 철저히 봉사해야 하는 “도구적 교육관”이다. 집단성과 조직성을 교육의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점에서 개인의 함몰과 조직에 의한 비인간적 획일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個人的 독창성과 자유는 위축이 되기 마련이며, 획일성의 요구는 非人間化와 인권의 억압을 파생시키게 마련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아울러 교육은 주형(molding)과 파형(breaking)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人間改造 이론에 나타난 교육은 오로지 주형만을 내세운다. 물론 이 주형의 모델은 김일성, 김정일 등 노동당이 내세운 획일화된 인간상이다. 주형된 人間들은 하나로 판찍히는 로봇과 같다. 결국 파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은 동의하든 안하든 간에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봉사하는 인간을 키우는 데 봉사할 뿐, 자율적 인간을 키우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인간개조 이론에 나타난 教育은 사회의 革命化를 위한 계급적 대립과 葛藤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인간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혁명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 농민, 인텔리에 대한 교육적 의도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보다는 사회적 개선과 혁명에의 기여도에 있다고 보는 이 책 속의 교육관은 共產主義 革命과 건설을 위해서 인간교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2. 교육방법적 측면

### 가. 내 용

#### (1) 인간개조의 세가지 수준

「인간개조 이론」에는 역사발전 단계에 따른 상이한 인간개조 戰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첫째 전략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의 인간개조 戰略이며, 둘째는, 사회주의 혁명시기의 인간개조 전략이고, 셋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시기의 인간개조 전략이다.

첫째 戰略에는,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이나 문명퇴치 운동 등의 반식민지 교육운동이 포함되고, 둘째 戰略에는, 문화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 초등의무 教育運動이나 문화 계몽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戰略은, 혁명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급투쟁이 청산된 이후의 사상개조 운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착취 계급의 잔여분자들이 남아 있으며, 그들의 파괴책동이 계속되는 것 만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p.91)는 것이다. 이 세번째 전략은 모든 사람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그들을 참다운 共產主義者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내에서의 현재 교육단계는 세번째 전략이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되며,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첫째 단계의 전략을 구사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인간개조 활동의 교수내용

인간개조 이론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가? 이른바 사상개조를 위한 교육내용을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주체사상 교양으로서 주체사상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당정책 교양으로써 勞動黨의 정책과 업적을 홍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혁명 전통 교양으로써 과거 식민지시대 이래의 반제 반봉건 활동의 역사, 특히 金日成의 혁명활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혁명 교양, 공산주의 교양으로써 계급의식을 계속적으로 고취하고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가르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계급의식이 그 핵심인바, 계급의식이란 온갖 착취계급과 제도를 끊임없이 증오하고 비타협적으로 鬪爭하자는 혁명 정신이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 (p.191).

### (3) 사상개조의 방법론

이 책에서는 인간개조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세 가지를 열거하는바, ① 해설과 설복, ②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③ 사상전의 전개가 그것들이다. 이 책은 해설과 설복이란 《사람들의 사고와 활동에서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본다.(p.218) 즉 《해설과 설복의 方法은 사람들에게 잘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能動的인 사유활동을 통하여 사물 현상의 본질과 革命的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며, 혁명적 세계관을 성과적으로 체득케한다》는 것이다.(p.218) 해설과 설복에 해당되는 수업방법은 선전과 선동, 강연과 강습, 담화와 이야기 모임, 예술선전과 직관 선동 등이다.

肯定的 모범에 의한 감화란 《군중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고 백방으로 발전시켜 군중 자신이 스스로 나쁜 점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방법》(p.223)이다. 《肯定的 모범은 不正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똑똑한 방도를 가르쳐 주어 근로자들을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鬪爭으로 추동하는 강한 힘으로 발전된다》(p.225)고 이 책은 주장한다. 아마도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 메스컴에서의 선행사례 홍보, 훈장 및 영웅 칭호 수여, 포상체제의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사상전이란 새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담보, 패기와 노쇠 사이의 심각한 사상 투쟁 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상의 관점과 사고방식, 革命的인 사업 태도와 사업 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상 교양 과정이다.(p.230)

사상전은 사상 교양과 사상 투쟁의 두 과정을 포함한다. 사상 교양이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선진적인 사상을 넣어 주는 것이며 (p.230), 사상 투쟁이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낡은 사상의 잔재를 뿌리채 들추어내는 과정이다. 낡은 사상의 잔재는 오랜 세월동안 굳어져 온 것이라서 보수적이고 집요하게 머리속에 버티고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때에 강한 타격을 들이대고 밀뿌리채 들추어 내야 한다 (p.231)는 것이다. 階級思想을 넣어 주는 것은 사상 교양이고, 낡은 사상을 빼내는 것은 思想 鬭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전에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 그것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이라고 이 책은 언급한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 책은 人間의 사상 개조에 치밀한 방법론을 도입한다. 이들의 치밀성은 이 책의 앞 부분에서 人間改造가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pp.60-70)

#### (4) 인간개조의 원칙과 방도

이상에 언급한 방식으로 인간개조를 진행하는데 지켜야 할 原則을 이 책은 네가지로 요약한다. 그 첫째는 주체를 확립하라는 것으로서 인간개조에 있어서는 “우리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p.240) 둘째는 勞動階級の 영도적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농민이나 인테리층은 노동계급의 지도와 방조에 의해서만 共產主義에로 나간다는 철칙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즉, 모든 노동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선봉부대도 그들이며, 전조선 人民을 영도하는 계급도 그들이라는 명예감과 책임감의 고취를 인간개조 운동에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p.254) 셋째는 모든 사람들의 교양 개조를 잊지 말라는 것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을 공산주의화 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革命的 승패는 결국 누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p.259) 본다. 넷째는, 인간개조 사업을 경제건설과 밀접히 연계시켜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思想意識은 결국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인만큼 사회주의 社會에서 그것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人民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 시키는데 기초하여 개변된다” (p.267) 고 본다. 다시 말하면 “경제건설을 잘하여 社會主義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人民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改造하는 근본적인 담보”라는 것이다. (p. 267)

이러한 네 가지 原則을 지키면서 인간개조를 진행하는데 고려할 方法的인 고려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학습”의 강화이다. 이들이 말하는 “학습”이란 革命思想과 이론, 전략 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기본 방도를 뜻한다. (p.276) 이 “학습”에 의하지 않고서는 革命鬪爭의 진리를 체득할 수도 없으며 높은 계급적 안목과 혁명적 식견을 가질 수도 없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p.267)

둘째는 조직생활의 강화이다. 이들이 보기에 조직생활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 수 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 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다. (p.283)

셋째의 고려점은 실천의 강조이다. 이들은 金日成의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이론 발전의 추동력”이라는 말을 교육에 적용한다. (p.291)



넷째는,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의 확립이라는 고려점이다. 낡은 생활양식을 몰아내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改善해 나가는 것 자체가 人間改造의 사업과 맞물려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생활 질서를 정연히 세우고, 共產主義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 생활의 규범들을 창조해 나가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각종 영역에서의 교양교육 수단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연맹, 농업 근로자 연맹, 사로청, 여맹 등의 조직들을 사상 교양 사업과 긴밀히 연계 시켜야 한다는 것인 셈이다. 그 밖에도 학교의 과외생활, 정치 조직생활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출판보도물 즉, 메스컴을 “예리한 思想的 武器”로 활용하고, 문학 예술을 대중화하여 근로 대중의 창작적 열성과 예술적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나가도록 이끌자는 것이다.

#### 나. 비판적 고찰

우선 인간개조의 세단계를 이 책은 科學的이고 합리적인 단계며, 이에 대한 戰略의 내용도 합법칙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세 단계는 실상 우리나라에서의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단계인 셈이며, 그 단계별로 나타난 教育運動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를 흡사 논리적이고 보편적 원리의 필연적 발전 단계인양 서술하고 있는 점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이론적이다. 주체사상의 이론적 관점에서 과거를 뜯어 맞추는(patch up) 인상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人間改造를 위한 교육내용으로서 이들은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 공산주의 교양을 강조한다. 과연 이것들이 인간개조의 필요 충분한 조건들

일까? 이들 내용은 共產主義라는 것을 최대의 전체 가치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아주 편협된 교육내용이다. 공산주의는 과연 그렇게 완벽한 이론인가? 공산주의는 더 발전될, 改善되고 수정되어야 할 요소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이론이며 체계인가? 과연 하늘 아래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 이상의 내용을 가르침으로서 도달케되는 인간개조는 결국 공산주의적 가치에 명목화된 인간에로의 변신에 불과할 뿐이다. 결코 사람들을 자주성,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교수방법으로 열거하는 세가지도 결국은 教育的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주입과 홍보라는 강제적 수업방식에 집착해 있는 측면이 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설과 설복, 모범의 모방, 思想鬭爭의 방향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학습자(학생)가 할 일이란 그저 가르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는 결국 5-R 원리에 입각한 조건화 과정의 원리를 연상시킨다.

인간개조의 原則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치적 목적에 편중되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측면을 본다. 예컨대, 勞動階級에 대한 사상 기초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더 많은 균중을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지, 또는 인간개조를 경제발전과 긴밀히 관련시키라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교수방법상의 原則은 너무 치밀하다. 계속적 학습의 강조라든지 실천, 체험과 조직에 대한 강조 및 마스크와 문화예술의 사상적 무기화, 학교의 과외활동 및 정치조직의 활용계획 등은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고 종속화되어 버린 실종된 교육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북한의 교육은 학습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당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봉사할 뿐이다.

### Ⅲ. 「인간개조리론」의 비교 고찰

— 中國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1. 비교고찰의 시각 및 관점

북한의 인간개조 리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가? 인간개조 리론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인간개조의 본질과 位置, 역사발전의 차원에서 본 人間改造와 과업, 인간개조를 위한 思想教養의 주요내용과 방법 그리고 인간개조의 원칙과 방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보다 올바르게 분석,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本稿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개조 리론의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제시한 시각에 터하여 선정된 문제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社會主義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 그리고 현상 자체의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똑같은 실체를 각각 다른 안경을 쓰고 보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이론과 현실도 어느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즉 사회주의 북한이 펴낸 인간개조 리론은 사회주의 자체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보다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색안경을 쓰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무맹랑하고 모순투성이 처럼 보여 이 이론이 표방하고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教育 이론의 밑바탕으로 작용하는 교육철학의 제 관점들이 북한의 인간개조 리론을 분석하는데 있어 좋은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철학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유물론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人間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보는 環境決定論이 그 첫째이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람은 원래 소질만 같고 태어나서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특정 유형의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요지이다.

두번째로는 全面發展論을 들 수 있다. 교육목적과 긴밀히 연계된 이론으로서 모든 면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념에 바탕하고 있다. 특정 부문 예컨대, 지적으로 편향된 인간을 길러 내는 교육은 무산계급 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智·德·體 등의 모든 면을 균형되게 발전시킨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사회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내용 중 특정 부문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소련은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는데 대해 중국은 共產主義的 지식과 도덕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는 差別消滅論이 있다. 이 이론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념의 실현, 그리고 계급투쟁과 긴밀히 관계하여 모든 사람을 무산계급화 하여야 한다는 이념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勞動者와 農民間의 차별 그리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과의 차별을 소멸시켜 노동계급화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넷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 정치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政治優先論이 있다. 이 이론은 정치사상교육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계급투쟁의 요청이 있으므로 정치가 모든 일에 우선하여 작용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여 나가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 2. 비교 고찰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시각과 관점에 터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할 문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본고는 북한의 인간개조 이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론이 담고 있는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핵심이 되는 연구문제는 아래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제는 이 이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 이론이 人間養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교육목적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인간상은 어떠한 인간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질을 지닌 인간인가하는 것을 규명하는 일이 우선 밝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상을 필요로 하게 된 背景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人間改造 이론이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론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며 시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완성되는 성질을 띠고 있어 이론의 특징과 그 역사적 지위는 그것이 어떤 社會歷史的 조건에 기초하여 나왔는가 하는데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과 시대적 歷史的 조건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덧붙여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인간개조를 위한 思想教養의 중요 내용과 방법은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가?

목표로 하는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구안되어야 한다. 인간개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방법은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함과 아울러 중국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셋째, 인간개조의 原則과 지침은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목표하는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해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지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원칙과 지침을 또한 구안하여야 한다. 指導의 방향과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인간개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人間改造의 원칙과 방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과도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3.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과 그 배경

북한의 인간개조 이론에서 궁극적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떠한 인간인가 그리고 시대적 背景과는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 인간개조 이론에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과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을 고찰하면 크게 세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북한의 역사적 단계를 ① 反帝反封建 민주주의 혁명시

기, ② 사회주의 혁명시기, ③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세번째 단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기를 공산주의 시기의 앞 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개념상으로 보면 사회주의 건설시기와 공산주의 건설시기는 상호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이론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세 시기에 있어 人間改造가 작용하는 때는 社會主義 革命時期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시기는 북한이 창건된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때의 인간개조의 과업은 주로 階級意識을 강화하는데 집중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인간개조는 모든 사람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길러내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역사적 단계에서 볼 때 사회주의 혁명의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때 여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길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체현한 인간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선진과학기술로 무장한 혁명화, 勞動階級化, 인텔리화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라고 또한 서술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은 헌법 제3장 제39조의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는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목적은 1977년 북한이 공표한 <社會主義 교육에 관한 테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와 결부지어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동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교육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간개조 이론에서 밝힌 인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로 볼 때, 북한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참다운 共產主義者' '共產主義的 革命 인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구체적인 자질로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체현하고서 공산주의적 사상과 선진과학기술로 무장한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한 人間'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들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전면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투철한 靑 우선적인 인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교육철학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발전된 균형된 인간을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질로 볼 때 靑 우선의 색채가 강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란 일반적으로 智德體가 균형발전된 인간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념성과 전문성을 동

시에 지닌 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선진과학기술로 무장한……’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념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중시한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이외의 ‘혁명인재’ ‘의식성을 지닌 인재’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텔리화한 인간’ 등과 같은 사회주의 이념성을 지닌 용어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으로는 紅의 자질을 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는 인간양성에 있어 政治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背景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성도 동시에 지녀야 할 자질이라고 하고 있지만 紅을 보다 우선하는 색채가 강하다. 즉 인간개조 이론은, 정치성을 우선하여 의식한 인간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치 우선론의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세째, 差別消滅論의 관점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을 노동계급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 사회내에는 여러 계급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무산계급의 독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산계급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階級鬭爭을 통해 부르조아 계급을 타파하여야 하는데 이는 勞動者 階級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개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혁명화 노동계급화한 인간’이라는 규정으로 볼 때 중국적으로 모든 인간의 차별을 消滅시켜 노동계급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변천 과정으로 볼때 인간개조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우선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적 인간을 養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共產主義的 인

간을 양성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단계 깊이 들어가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공산주의적 인간이라 해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어느 때는 사회주의 이념(紅)을 우선하는가 하면 때로는 전문적인 자질(專)을 우선하는 시기도 있다. 대체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시기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주의 중국을 예로 들면,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紅 우선과 專 우선의 정책이 주기적으로 교차되어 왔었다. 건국 초기에는 사회주의 체제 확립을 위해 紅을 우선할 수 밖에 없었다. 1950년대 중반 유소기의 수정주의 노선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곧바로 대약진 運動에 불을 당겨 紅 우선의 원칙을 견고히 하였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모택동도 후선으로 물러나고 유소기가 대신하여 전면에서 부상함으로써 專을 우선하는 수정주의 노선이 전면 채택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 양성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이념의 부문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모택동이 1966년 문화대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권력투쟁을 통하여 재등장함으로써 유소기는 실각하게 되었으며 專을 우선하는 정책은 다시금 紅 우선의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文化革命의 후유증이 너무 커 사회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한껏 풀이 꺾였다가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소위 '4대 현대화 건설'에 초점을 맞춘 專 우선의 정책으로 또다시 바뀌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최근 들어서는 사회개방과 專 우선 기본방향을 확고히 하고자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는 이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거론한 바에 의하면,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후 약 100년간은 초급단계로서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共產主義 社會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건국 40년이 되는 이 시점은 사회를 開放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여 경제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4대 현대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난 중국은 덩소평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천안문 사태 이후 계획경제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 수정주의 路線에서 다시 교조주의적 노선으로 돌아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개방과 專 우선의 대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共產主義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紅 우선 또는 專 우선으로 주기적인 변천을 하여왔다. 정책방향과 관련지어 보면 교조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紅 우선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내세우는데 대해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때는 이에 맞춰 專 우선의 공산주의적 인간 養成으로 방향을 바꾸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크게 겪음이 없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우선하는 紅 우선의 인간 양성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인간개조 이론의 내용으로 볼 때 더

육 체계화되고 강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보다 확고히 공산주의적 인간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어린이 보육 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같은 교육법규를 제정 공포하여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육성하고 사회주의 교육도 보다 과학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간개조 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은 없었다. 물론 기존의 교육에 관한 주장을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이론적인 체제를 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론서가 제시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모든 북한주민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共產主義的 인간으로 철저히 재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紅 우선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과연 북한 사회의 어떤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가?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지난 40년간 정권의 交替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은 채 金日成 獨裁의 아성을 굳건히 하여왔다. 또한 교조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인가 수정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에 대한 葛藤도 심하게 표출된 적이 없었다. 사회 開放을 완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폐쇄주의 정책을 굳건히 고수하여 옴으로써 내부의 변화를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시대에 따라 紅 우선이나 아니면 專 우선이나 하는 葛藤이 겉으로 심하게 표출된 적이 없었다.

이동원의 연구 1) 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과 같이 黨政이 분리되어 있

---

1) 이동원, 중공과 북한의 동원방식의 비교 연구, 대만 국립정치대학 박사학위 논문(1985년) 참조.

지도 않고 지방자치도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즉, 黨政一致, 政社合一의 기본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전체의 통합과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지나치게 요구하여 黨의 일원적인 영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때문에 인간을 養成하는 사업인 교육에 있어서도 강력한 政教一致의 특성을 띠고 있어 紅우선의 색채가 강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독재정치를 유지하면서 외부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충격을 내부적으로 잘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옴으로서 표면적으로는 紅우선이나, 專우선이나 하는 갈등이 심화되지도 않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사회가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사회체제이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으로 볼 때 북한은 기본적으로 폐쇄된 교조주의적 사회주의 정체에 기반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체제는 곧 共產主義 理念에 투철한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에 의해서만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인간개조 이론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쓰여졌다고 판단된다.

#### 4.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의 중요내용과 방법

인간을 개조하는데 있어 궁극적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며 사회적 배경과는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부분은 주로 교육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

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간개조 이론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교육방법에 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과학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가 중국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가. 思想教養의 내용 측면

인간개조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인간 개조에 관한 科學的 理論을 확립하며 사람들을 개조하는 어렵고 複雜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人間改造의 本質을 정확히 밝혀야만 그것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발전과정의 합법칙성,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등 인간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개조하는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은 사람에대한 완벽한 철학적 해명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이룩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人間改造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준다.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에 의하여 인간개조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의 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인간개조에서 근본적이며 가장 主되는 것은 사상개조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인간 개조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오한 科學的解明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이란 무엇인가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

어서 사상개조이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목적의식적이며 적극적인 思想教養事業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남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사상개조문제, 인간개조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主體의 인간개조이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基本風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客觀的要求, 사상의식형성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전면적이며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의 黨이 강력히 이끌어 나아가야 할 사상교양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해명해 준다.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이 밝힌 사상교양의 내용에 관한 이론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育成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를 새롭게 해결한 獨創的 이론이며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내는 참다운 길을 열어 놓은 必勝不敗의 지도적 지침이다.

#### 7) 주체사상 교양

사상교육의 내용 중에 우선 주체사상교양을 들 수 있겠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사람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노동계급의 革命偉業,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혁명적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見解의 총체로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기본을 이룬다. 사람들의



모든 사상정신적 풍모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발현되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바로 세계관의 높이에 의하여 평가되게 된다. 사람들은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수록 모든 사물현상들을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더욱더 정확하고 깊이있게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勤勞人民大衆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必然的 요구와 세계의 始源問題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새로운 역사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提起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存在로서의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決定한다는 철학적원리를 闡明함으로써 세계관 발전에서 새로운 變革을 가져왔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며 사람에게 의하여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운동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이 확립되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관은 사람이 가지는 세계에대한 통일적인 見解로서의 자기의 본성에 맞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되었으며 물질세계발전의 一般的 合法則性を 밝히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람에게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 발전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세계관으로 되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근로 인민대중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

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옹기 발양시키는 戰略戰術,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전략전술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상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수준과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것만큼 사상교양 사업을 一律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더우기 심오한 원리들과 비상히 풍부하고 多方面的인 내용이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된 주체사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적으로 體得시키는 주체사상교양을 한가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부들과 一般勤勞者들을 갈라서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재와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만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과 풍부한 내용들로 모든 사람들 깊이 體得시킬 수 있다.

주체사상을 原理적으로 인식시키는것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 이론만 가지고 교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사상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투쟁의 무기이며 행동의 指針이다. 주체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는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勤勞人民大衆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학설로서 그것이 자연과 社會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실천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는데 있다.

#### ㄴ) 당정책교양

다음으로 주체사상교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黨政策教養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黨政策教養은 노동계급의 당이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노동계급의 당의 노선과 정책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諸關係를 표현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수령과 黨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노선과 정책을 제시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擁護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수령과 당의 구상과 意圖가 배려되어 있다.

당정책교양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당정책을 알려주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당정책을 열렬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자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黨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의 한 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당정책교양의 근본목적이 있다. 따라서 당정책을 전달이나 하고 당정책의 文句나 외우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는 것이다.

당정책교양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게 되어야 해결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黨政策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할 때에만 당정책을 유일한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버릴 수 있다. 또한 당정책의 本質과 정당성을 깨닫고 그것을 조건없는 信念으로 간직할 때에만 어떤 복잡한

정황이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固守할 수 있으며 能動的으로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다.

그런것만큼 당정책교양을 언제나 혁명실천과 密接히 결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정책교양과정에서 당정책이 집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집행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 있는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당정책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그들이 당정책을 더 잘 관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은 당정책교양이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며 주되는 내용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새롭게 천명함으로써 노동계급이 당의 사상사업에 관한 이론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워낼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상교양이나 당정책교양도 혁명전통교양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ㄷ) 혁명전통교양

勤勞者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그들로하여금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알게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의연히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할 수 있다.

혁명이 進展하는데 따라 혁명의 대가 바뀌어지고 지난날 각고한 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 새대들이 혁명의 基本力量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은 더욱 절실

하고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 속에서 革命傳統教養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혁명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와같이 혁명전통교양이 근로자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鬪爭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근본 조건으로 되는 것만큼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는 혁명전통교양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고귀한 부이며 밑천인 혁명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遂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사람들에게 혁명과 공산주의교양을 충분히 고무시켜 資本主義의 낡은 사상을 제거하여야 한다.

#### ㄴ) 혁명교양, 공산주의 교양

공산주의교양에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은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思想教養事業이다.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覺醒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 입장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교양으로서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으로 된다.

勞動階級の 계급의식은 온갖 擄取階級과 擄取制度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와 非妥協的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관점과 태도이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상의식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혁명적 세계관과 집단주의 사상,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공산주의 도덕

등 모든 공산주의사상은 바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며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발현되게 된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난 공산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계급교양을 떠난 공산주의교양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武裝할 때에만 공산주의자의 根本徵表를 갖출 수 있으며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된다.

階級教養이 공산주의교양의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根本條件이 되기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원칙이 확고히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하고 배우며 生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집단주의 교양을 공산주의교양의 가장 主되는 내용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집단주의교양에서는 集團의 위력과 組織生活, 集團生活의 중요성을 잘 깨우쳐주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상은 집단과 개인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은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강하고 개인의 사생활보다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 집단과 조직에 의거함으로써만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더 貴重히 여기게 된다. 집단주의사상은 집단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

는 革命的인 사상이다.

집단주의교양에서는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利益, 黨과 革命的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상은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조직정치 생활과정에서 자기가 속하여 있는 집단과 조직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집단과 組織의 規律를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鬪爭하는 革命精神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상적교양은 자기자신의 나라의 혁명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혁명은 자기민족, 자기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공산주의혁명가는 자기 민족, 자기 인민, 자기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의 體驗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조국과 인민을 사랑함으로 하여 조국의 자유와 인민대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은 나라와 민족의 尊嚴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 데서 커다란 힘으로 된다. 민족자주의식을 가져야 민족의 자주권을 侵害하는 侵略者와 壓制者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고수할 수 있다. 또한 민족자주의식을 가져야만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확고한 主體的立場에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전통, 고귀한 문화유산과 풍습,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재산을 똑똑히 인

식시켜 그들이 민족자주의식과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에 발전하여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계급적이익은 본래부터 국제적이며 각 나라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뿔 수 없는 구성부분이다.

세계혁명은 각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이루어지며 다른 한편 국제노동계급의 계급적연대성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은 매 나라에서의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여기서 참다운 국제주의자가 되지않고서는 자기조국을 사랑할 수 없으며 참다운 愛國者로 되지 않고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과 密接히 결합시켜 진행하며 勤勞者들속에서 민족적 自負心을 높이는 것과 함께 국제적 연대성의 정신을 높이는 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에서 원칙적 요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북한의 인간개조 이론에서는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으로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革命教養과 공산주의 교양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주체사상 교양이 정치사상교육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할 까닭은 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어떤 철



학에 비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金日成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 혁명가의 기본 표징인데 이 사상이 바로 김일성에 의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 김일성이면 만사형통이라는 넌센스를 담고 있다.

당정책 교양 또한 政治思想 교육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은 북한노동당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실제적으로 북한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기관이다. 따라서 당의 정책을 올바르게 교양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를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우기 金日成의 의도대로 사 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의도가 黨政策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매우 필요하다는 논지까지 제시하고 있어 또 하나의 넌센스를 담고 있다.

혁명전통 교양은 과거 북한사회를 혁명하는데 있었던 전통적인 사례를 주요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써 전통적인 항일 유격대 활동과 같은 내용을 새 세대에게 전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혁명교양과 共產主義 教養을 정치사상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세가지와는 다른 차원을 담고 있다. 앞의 세 내용은 주로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특수한 정치사상교육 내용인데 대해 이 부문은 사회주의 이념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교양위주의 내용인 것이다. 階級鬭爭에 기반한 교양, 집단주의 의식, 노동을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교양, 공산주의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조하는 것이 이를 말

해주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보면 인간개조 이론에서 제시한 정치사상 교육의 내용은 공산주의적 사상교양에 바탕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의도적인 내용을 보다 많이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主體思想教養과 당정책 교양을 우선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중국의 정치사상교육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일반교양과 중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제반 법규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여덟가지 내용이 위주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혁명이상과 전통을 부각시키는 내용,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애국과 社會主義의 국제화에 관한 내용, 무산계급 의식에 관한 내용, 집단주의 가치관, 노동사상의 가치관,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정립, 공산주의적 도덕관, 그리고 사회주의 규율의 자각과 준법정신 등의 내용을 들고 있다.

이들 내용을 표면상으로 보면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체사상교양과 같은 특수한 용어를 발견할 수 없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내용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면 중국사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社會主義 理念 일반적인 사항과 중국적인 내용을 결부시키고 있지 위대한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主體思想과 같은 내용은 포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중국 공산주의를 창건한 모택동이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그의 思想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지 이상화 차원까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인간개조이론이 제시한 정치사상교육의 내용과 중국을 비교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구별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첫째로는 북한이 중국보다 政治思想教育에 있어 공산주의적 일반교양보다 정치의 특수성을 보다 강력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주체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이상화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여기에 김일성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黨政策教養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를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점이다. 무산자 階級意識에 관한 교양, 집단주의 가치관, 노동사랑의 가치관, 공산주의적 도덕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국제화에 관한 내용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셋째로는 자국 社會主義 발전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모두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으로 社會主義 革命의 전통과 공산주의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혁명시절의 투쟁 역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社會가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이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나. 사상교양의 방법 측면

사상을 개조하는데서는 사상개조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과 함께 그 방법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사상개조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적

사상 정신적 풍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體得시키겠는가 하는 사상 개조의 속도와 관련된다. 그 방법에는 해설과 설복, 肯定的 모범에 의한 강화, 사상전 등이 있다.

#### 7) 해설과 설복

解說과 說服의 방법은 착취계급들이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고 그들속에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방법에 대립된다. 그 방법은 敵對分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같이 진압의 방법,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방법이다. 원래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內面世界를 개변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신들 자신의 자각성을 발동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선진사상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낡은 사상을 부정하고 버리게 되어야 思想改造가 실현된다. 그런것만큼 共產主義思想의 진리성과 진보성, 낡은 사상의 非科學性과 반동성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說得시키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의거한다.

解說과 說服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실정에 맞게 실행하여야 한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革命思想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공감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信念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마다 의식수준이 各異하고 혁명임무와 주위환경이 다르며 성격과 趣味도 같지않다. 따라서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옳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진행하여야만 各異한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진리를 깊이 體得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

의 사상을 개조하는 어렵고 複雜한 사업을 成功的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해설과 설복의 구체적인 형식과 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宣傳과 선동 강연과 강습, 談話와 이야기 모임, 예술선전과 직관 등은 모두 자기의 獨特한 내용과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해설과 설복의 형식과 방법들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고 그들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한 두번의 해설과 설복으로 實現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殘滓는 오랜 기간에 걸쳐 뿌리박히고 관습으로 굳어진 것으로서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더우기 낡은 사상잔재는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한 것으로서 일단 없어진것 같이 보이다가도 기회만 있으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문제를 한 두번의 교양으로서는 결코 解決할 수 없다. 문제는 해설과 설복을 얼마나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하는데 달려 있다. 해설과 설복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하여 進行한다면 아무리 낡은 사상 殘滓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개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에만 사상교양방법으로서의 해설과 설복의 위력을 발양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革命家,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교양자로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모든 勤勞人民大衆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그들이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굳

게 통일 단결되어 다같이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교양을 하는 사람과 교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이끌고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特性이다.

#### ㄴ) 肯定的 모범에 의한 감화

社會主義下에서의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에는 사람들을 肯定的 모범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있다. 군중은 긍정을 指向하고 있으며 부정을 없애고 긍정을 創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군중교양사업에서는 군중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고 百方으로 발전시켜 군중자신이 스스로 나쁜 點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勤勞人民大衆은 새것, 진보적인 것, 긍정적인 것의 대표자이다.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人民大衆은 언제나 위와 같은 것을 지향하며 또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창조해 나간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부정적인 것이 支配하는 착취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며 사람들은 새롭고 선진적인 것 아름답고 고상한 것, 긍정적인 것을 指向, 창조해나간다.

계급적 대립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

하여 통일 단결되어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새것과 낡은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鬪爭이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비판을 통하여 낡고 부정적인 것이 극복되고 새것, 긍정적인 것이 勝利하게 된다.

긍정적인 모범은 그 자체가 부정에 의한 가장 積極的이고 효과적인 비판으로 된다.

비판의 목적은 缺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결함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며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긍정적인 모범에 의하여 가장 훌륭히 實現된다.

#### ㄷ) 사상전

사상혁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전을 반드시 履行하여야 한다. 사상전은 사고방식과 사상관점,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품등 모든 면에서 根本的 전환을 이루기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과정이다. 사상전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革新과 沈滯, 전진과 踏步, 패기와 老衰 사이의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며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상과정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세우기위한 사상교양과정이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은 각각 자기의 獨自的인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개조의 필수적인 契機이면서도 그것들은 서로 떼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을 이룬다. 사상교양은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전제로되며 사상투쟁은 새로운 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必須的條件으로 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새로운 사상을 넣어주어야 낡은 사상이 빠져나가게 되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빼내야 새로운 사상이

잘 들어가게 된다.

사상전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온갖 가능성을 동원하여 모든 사업을 最大限으로 빨리 밀고나가는 속도전의 원칙을 사상사업에 구현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가장 積極的으로, 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방법이다.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이다. 사상전은 온갖 낡은 사상에 대하여 適時에 공격을 들이대며, 일단 시작한 투쟁은 끝을 볼때까지 연속적인 충격을 加함으로써 낡은 사상요소들이 最短時間內에 消滅되게 한다.

사상전은 집중공세의 방법을 취한다. 모든 선전선동수단들,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여 성과를 얻는다.

사상전은 또한 섬멸전이다.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침식하고 혁명의 전진에 제동기를 거는 주되는 사상요소들을 과녁으로 삼고 거기에 공격을 가하여 하나하나 철저히 극복해 나간다.

사상전의 성과는 사람들의 행동과 실지 사업을 통하여 발현되고 鞏固化된다. 그런것만큼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정경제조치와 구체적인 교양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상개조 이론에서는 사상교양 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상개조의 본성과 思想意識 발전의 합법칙성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산주의적, 사상정신적 풍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체득시키느냐와 관련하여 해설과 설복,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그



리고 사상전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면세계를 개변하는 것은 주입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이르고 깨우쳐 주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다 深層的으로 내면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를 통한 감화방식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통해 부정에 대한 비판의식도 길러주고 긍정적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감화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주체적인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 革命的인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사상교양과정이 또한 방법으로 원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담보 등의 대비적인 관계를 제시하여 지도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방법은 思想教育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있어 深層的이며 매우 적극적이라고 보여진다.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설복, 감화, 비판적인 토론의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학생시기에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政治思想 教育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설교적 방법, 감성적 도야법, 실제 단련법, 모범적 시범을 통한 감화, 자기 수양법, 그리고 공평한 평가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고 있다. 북한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도 보다 완전한 思想의 확립을 위해 이론과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활용해 보아야 한다는 실제 단련법, 자기 스스로의 내부적인 동기 유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기수양법, 그리고 상벌의 원리에 입각한 평가의 중요성까지도 제시하고 있어 매우 구체적이다.

## 5. 인간개조의 원칙과 방도

人間改造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共產主義的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있어서의 지침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인간개조 이론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비하여 논의한다.

### 가. 인간개조의 원칙 측면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과 그 黨의 사명과 임무, 혁명발전의 필연적 요구와 인간개조의 특성에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人間改造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몇가지 혁명적 원칙들이 있다.

#### 1) 주체 확립

그 원칙의 하나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인간개조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에 모든 문제를 자기나라 인민 이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가며 자기나라 革命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의 혁명을 떠난 추상적인 혁명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을 외면하고 理論的인 혁명을 云云하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은 구체적인 생활과 현실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상과 지식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필요로부터 자연과 사회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 본질에도 浸透하여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에 대한 一定한 견해와 立場을 가지게 된다. 생활과 동떨어진 지식과 사상은 空虛하고 無意味한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는 사상과 지식은 현실의 反映이다. 과학지식은 사물현상들의 여러가지 속성들이 사람의 頭腦에 반영된 것이다. 客觀的인 현실이 사람들의 감각기관에 反映되어 感覺, 知覺, 표상과 같은 생생한 직관이 형성되고 여기로부터 체계적이고 공고한 지식으로 나가는것은 인식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이다. 현실을 떠난 知識이란 있을 수 없으며 현실과 遊離된 환상은 과학지식과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사상과 지식이 구체적인 생활과 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사상과 과학지식을 體得시키기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주체를 세워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자기인민의 생활상요구와 자기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教育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는 자기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는 물론 既成理論이나 남의 경험,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 문화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人類가 달성한 모든 선진적이고 우수한것을 전면적으로 체득하여야만 참으로 힘있는 존재로 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것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자기의 것에 정통한 조건에서 남의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만일 자기의 것을 모르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기나라 혁명에 이바지할 수 없을뿐 아니라 도리어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해독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에서 주체를 세워 모든 사람들을 자기나라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교양하며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사대주의, 교조주의나 다른 민족을 蔑視하고 증오하는 민족배타주의, 다른나라와 관계를 끊고 문을 닫는 鎖國主義, 그리고 시대의 요구와 階級的 原則을 떠나서 지난날의 것을 덮어 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復古主義와 같은 반동사상도 주체확립의 원칙과 대립되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나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共產主義者로 키우는 것을 방해한다.

#### 나)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의 강화

이러한 주체확립은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노동계급은 지난날 資本主義 社會에서 가장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고 아무것도 가진게 없었으므로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自主性을 실현하기 위한 鬪爭意慾과 투지가 어느 계급보다 강하다.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하여 끝까지 鬪爭해 나가는 것이 노동계급의 고유한 특성이다.

노동계급은 또한 역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집단적인 노동에 종사하

여 왔고 생산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대규모적이고 현대적인 생산과 연결되어 일하고 生活하는것만큼 다른 그 어느 계급보다도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하여 문화기술수준도 높다.

農民과 인테리는 노동계급의 지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갈 수 있다.

농민은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와 물질기술적 支援을 받아야만 封建的인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소소유자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될 수 있으며 자기의 사상, 기술문화의 落後性을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인테리들도 노동계급의 계급적 영도와 혁명적 작용을 받아야만 착취계급에서 복무하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요성과 이중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될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 ㄷ) 모든 사람들의 교양개조

또 인간개조는 노동자계급의 영도하에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한다. 성분이나 환경 사회정치 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黨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담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여 계급적 출신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다 같은것이 아니며 또 모두가 다 사회주의의 길로 처음부터 확실성있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지난날 착취계급의 희생자들과 그 자녀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지만 계중에는 착취계급에 속하거나 그에 복무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 사회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도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하여 신

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참 못하는 뒤떨어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은 이러한 모든 계통을 다같이 교양개조하여 다 함께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原則을 견지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만큼,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몇몇 사람들의 利益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속에 잘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높고 풍부한 인간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니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거나 일시적 과오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장 이해성 있고 대범한 사람들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落後性은 어떤 천성적이고 不變的인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뒤떨어진 사람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고칠 수 없는 사상적 缺陷이라 없다.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사람의 개인적 본성의 영원성을 설교하며 사람들을 우수한 인간, 열등한 인간, 선발된 사람과 低俗한 사람으로 갈라놓고 그것을 천성에 의하여 規制되는 不變的인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계급적 착취와 지배를 合理化하여 永久化하려는 목적에서 꾸며낸 허황된 이론이다.

사람의 品格과 자질은 사회적 영향과 교양의 산물이며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영향과 교양을 받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의 성분이나 사상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성분과 사상도 변한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 日時的으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개조될

수 있으며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변하는데에 따라 선진적인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는 것이다.

ㄹ) 경제건설과의 밀접한 결합

또한 人間改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다른 과업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物質技術的土台를 쌓기위한 경제건설과 밀접한 연관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의식 형태로서 그것이 客觀的, 物質的 조건과 맺고있는 연관관계는 사물현상 자체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 지식이 객관적인 물질세계와 맺고 있는 연관관계와 구별되는 一連의 특성을 가진다.

지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질세계가 직접적인 반영의 대상으로 되지만 사상의식의 경우에는 물질세계가 직접적인 반영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지식은 그 내용이 물질세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치하고 그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규정되지만 사상의식의 내용은 객관적인 물질세계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도 의식의 다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窮極的으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따라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람들이 물질생활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들이 공산주의 偉業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필승의 信念과 革命的 樂觀主義, 社會主義, 愛國主義와 계급적 적대자와의 비타협적인 鬪爭정신등 공산주의 사상을 확고한 信念으로 간직하게 된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이룩해야만 부르조아 사상, 소부르조아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가 극복될수 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장비될때 사람들은 높은 科學技術을 所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천적 요구에 부딪치게 되며 그렇게 될때 모든 사람들이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이용하여 자기의 문화기술 수준을 빨리 높여나가게 된다.

이러한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는 여러가지 물질적 수단이 必須的이다. 신문, 라디오, TV를 비롯한 出版, 報道 施設들과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 많은 문화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경제건설을 加速化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위에 올려 놓아야 노동생산능률을 높여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大學에 보내 일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학습에 돌려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文化 수준을 빨리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사상을 개변하는 것이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모두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堅固히하는 기초위에서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것만큼 인간개조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과 密接히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인간개조 이론에서 제시한 중요원칙으로는 앞서의 思想改造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체 확립, 勞動階級の 영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의 강화, 모든 사람들의 교양개조 그리고 경제건설과의 밀접한 결합의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은 구체적인 생활과 현실에 기반하여야 하므로 金日成이 북한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 主體思想에 따라 주체를 확립하도록 하며,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이 주도하여 농민, 인텔리와 창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改造가 가능하므로 人民 모두를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이다.

특이한 점은 사상개조의 목적에 충실하게 紅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건설과의 결합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는 社會主義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즉 사상의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과 밀접히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思想革命과 아울러 사회주의 경제건설도 동시에 이룩하여야 하는 북한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북한의 인간개조의 원칙이 紅 편중적이며 구체성이 있음에 대해 중국은 오늘의 중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人間 개인의 특성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人間改造의 원칙은 교육목적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社會主義 理念에 충실하면서도 또한 전문성도 동시에 지니는 인간(又紅又專)으로 양성해내는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4대 현대화 건설이라는 당면 목표를 수행해내는데 있어 필요충분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紅의 측면을 보면, 오늘의 중국사회는 이념상 두가지의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文化革命때 사인방과 임포의 잘못으로 인해 만연된 極左 편향적인 이념이며, 나머지 하나는 개방으로 인해 나타난 폐해로써 자본주의 물결에 휩쓸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이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학교교육이 진학위주의 경향에 편중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기술만 지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흘러드는 경향도 만연되고 있어 올바른 思想意識 教育의 원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政治思想 教育은 실제의 요구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우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문제해결능력도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4대 기본원칙, 즉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共產黨의 영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신봉이 철저히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며,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쟁관점도 충실히 이해하여 결과적으로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세계관을 확립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학습이 理論과 실천의 상호결합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혁명정신을 높이는 것도 한층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政治思想教育에 있어서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상교육에 있어서는 학생 중심적인 원칙을 지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因材施教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발달의 차이가 있으며 개성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思想教育을 교사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사와 학생간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이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의 발달심리와 개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때 人間改造의 원칙에 있어서도 북한이 훨씬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체확립이라는 목표적 차원도 적극적이지만 勞動階級이 인간개조를 주도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북한사회의 또다른 요구인 경제건설과의 결합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편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중국보다는 매우 적극적인 느낌을 준다.

#### 나. 人間改造의 중요 방도

주체의 인간개조이론은 사회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특성과 사람들의 의식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인간개조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야 한다.

#### 가) 혁명적학습의 강화

學習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思想意識과 現代的인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

는 첫 공정이며 기본수단이다. 학습을 통해서만 혁명사상과 이를 전략전술의 심오한 원리와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의 本質을 把握할 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사상적 및 과학기술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수 있다.

물론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實踐活動과 직접적인 生活體驗을 통하여서도 많은 것을 배우며 혁명적으로 개조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抑壓을 당하는 과정에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는 사상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實踐鬪爭過程에 자신이 직접 많은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갖가지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實踐活動과 生活體驗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사상과 지식은 극히 부분적이며 制限的이다. 그것은 각 사람들의 실천활동과 생활체험은 전인류의 실천활동과 생활체험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좁은 영역에 局限되어 있기 때문이다.

實踐活動過程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배우는 것만으로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충분히 습득할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의 資質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실천활동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사상과 지식의 좁은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는 強力한 수단은 바로 학습이다. 따라서 혁명적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인간개조의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방도로 되는 근거가 있다.

학습은 사람들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능동적사고와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의 진리와 客觀世界의 합법칙성을 파악하고 체득할 수 있다.

사람마다 준비정도가 다르고 특성도 각각인 만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 一律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소득도 기대할 수 없으며 공연히 학습의 熱意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嚴格하고 질서있는 規律과 統制가 必要하다. 그 方法에는 학습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 집행을 도와주며 학습에 대한 총화를 신속있게 책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의 원만을 위하여 職盟組織들은 勞動者들이 일상적으로 학습을 잘하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습시간을 보장해야 주는 것은 물론 物質的條件들이 잘 마련 되어야 한다.

#### ㄴ) 혁명적 조직생활의 강화

다음으로 혁명적 조직생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적 운동의 본성이다. 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조직성에 기초하고 있는 공산주의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혁명조직에 굳게 결속되며 강철같은 조직규정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利益을 조직의 利益에 복종시키며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조

직성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특성이다.

혁명조직은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武器이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당원들과 同盟員을 수령의 革命戰士로서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도록 이끌어주며 그들을 하나의 혁명대오로 묶어 세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으로 조직통원한다.

黨 및 勤勞團體 조직들은 모든 조직성원들로 하여금 언제나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철저히 지키며 조직생활 규범에 따라 생활하고 組織規律에 철저히 복종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고 생활하며 組織規律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無條件 집행하는 강한 조직성을 키워나가며 공고히한다.

이러한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 사업이다. 비판은 넓은 사상잔재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그 원인과 해독성을 똑바로 밝혀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게 한다. 대중적인 비판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넓은 사상잔재가 아무리 뿌리깊고 집요한 것이라도 성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비판은 한 사람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결함을 깨닫고 고쳐나가게 하며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게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판에 대한 原則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판이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고 團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게 하며 비판사업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게 하여야만 혁명조직은 사상단

련의 용광로로서의 위력을 높이 發揮하게 된다.

ㄷ) 혁명적 실천을 통한 교양의 강화

사람들의 사상은 革命課業을 수행하는 실천행동에서 나타나며 實踐鬭爭을 통하여 검열된다.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사상의식 상태와 그 개변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혁명실천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고 하여 실천투쟁에 참가하면 저절로 공산주의 혁명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실천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수단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실천과정이 혁명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실천투쟁을 통한 교양의 성과는 실천투쟁에 얼마나 오랜 기간 참가하였는가 하는데 의해서가 아니라 實踐鬭爭過程을 어떻게 혁명화 과정으로 되게 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左右된다.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데에는 생산 현장을 據點으로 하여 공산주의교양을 진행하는 것이다.

생산현장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생산현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다 바쳐 자연과의 鬭爭을 벌리며 여기서 자신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고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준비하게 된다. 사람들의 생산활동과 사람들의 의식개변이 직접적으로 결합되고 통일적으로 발현되는 곳이 바로 生産現場이다.

그런것만큼 생산현장을 據點으로 하여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만 사람들의 의식화를 生産活動과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으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실현할 수 있다.

#### 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생활양식을 全面的으로 確立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서 그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개인의 利益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이지만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며 근로자들의 自主的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생활양식이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는 국가사업에서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일상적인 공동생활규범과 文化 道德生活 規範들을 창조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 미) 교양수단들의 역할 제고

노동계급의 黨과 국가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여러 가지 교양수단들에 의거한다. 근로단체와 학교,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등은 노동계급의 당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교양수단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에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軍중과의 사업을 하여 그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은 노



동계급의 당이 대중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 원칙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外廓團體이며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 단체로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단체는 職業別, 階層別로 조직된 혁명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자기 조직의 성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자기 부문앞에 나선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 나간다. 또한 근로단체들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자기 조직성원들의 직업적 및 연령적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짜서 진행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國家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革命化의 本據地이며 文化革命의 거점이다.

착취사회에서는 학교가 착취계급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되고 사람들을 착취계급에 順從하도록 만드는데 비하여 社會主義 사회에서 학교는 자라나는 새 世代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偉業에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 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一部 少數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가 교육사업을 완전히 責任지고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킨다. 이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시절에 학교교육을 거치게 된다.

학교에서는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교수와 연습, 실험과 실습, 생산노동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각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

檢閱과 總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는 또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학교의 모든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教育計劃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사업을 統一的으로 조직지도하고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데에는 出版報道物의 役割을 중시해야 한다.

출판보도물은 일상생활과 密接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 직장과 가정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이용된다. 따라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며 각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素質, 기호에 맞게 교양하는데 있다. 출판보도물은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도 무한히 폭넓고 多樣해서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반영되어 있으며, 인류가 역사적으로 쌓은 사상과 지식, 경험이 풍부히 서술되어 있다.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자기나라 黨과 國家가 각 시기에 따라 제시하는 정책으로부터 세계의 정치적 발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연, 지리, 역사를 비롯한 일반 상식으로부터 최신 과학기술 성과의 전문지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식을 體得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중 교양자료로서의 출판보도물의 인식 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풍을 구현하여 글을 짧고 알기쉽게 써야 하는 것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개조에서 문학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崇高한 세계를 진실하고 폭넓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와 사회생활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

식을 가지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참다운 사회적인간, 공산주의적 혁명가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창조하며 그것이 형성 발전되는 과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낸다.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은 생활의 論理, 鬪爭의 논리에 의하여 참다운 共產主義者는 어떤 인간이며 그의 사상정신적 풍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 인간을 열렬히 동경하고 자신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준비해나갈 굳은 각오를 가지게하며 또 그것을 훌륭히 실현해나가게 한다.

문학예술은 또한 社會生活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社會生活의 各異한 側面들을 정확히 보여주며 그에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를 내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現實을 깊이 把握하며 생활과 鬪爭에 필요한 多方面的인 知識을 가지게 한다.

문학예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충성심과 창작적열정을 높이 발양시켜 교양적 가치가 큰 文學藝術作品을 많이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문학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문학예술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共產主義的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있어 동원수단, 지켜야 할 지침 등을 묶어 중요 방도라

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革命的 학습을 강화하고, 둘째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세째 혁명적 실천을 통해 教養을 강화하고, 네째 社會主義的 생활양식을 확립시키며, 다섯째로는 교양수단들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미흡한 이들의 관계를 재정리 하면 인간개조는 혁명적 학습, 조직생활 그리고 실천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대로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단체, 학교,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 등의 교양 수단들은 측면에서 최대한 이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 내용들을 살펴볼 때, 人間改造라는 개념이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듯이 인간을 共產主義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지적인 학습활동, 각종 조직을 통한 활동,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천활동 등에서 인간개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교 이외에도 직업조직 그리고 출판보도물과 심미감을 도야하는 문학예술까지도 인간개조사업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인간개조사업이 절대 지상의 사업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침들을 과학적인 방도라 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은 共產主義 社會로의 발전이 역사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절대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환경과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環境決定論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나 의지, 지혜와 성격적 특성을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질만 가지고 태어나서 社會的 環境이나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형

성되어지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이 없고서는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해 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간개조의 방도라 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중국에서도 대체로 중시되고 있다. 즉 모든 학습에 있어서 유물주의 역사관과 결부하여 指導하도록 하며 각종 집단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理論과 實踐을 반드시 결합하여 지도함으로써 산지식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모택동이 일찌기 지식 자체를 산지식과 죽은 지식으로 구분짓고 산지식화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지적 사념에 치중하는 교육은 죽은 지식만을 생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역기능을 준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에서는 半工半讀制 학교가 전형적인 학교모형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이를 강조한 대표적인 시기를 들자면 문화혁명때를 들 수 있다. 이때는 모든 학교를 이러한 방식으로 改編하였을 뿐만 아니라 下放이라는 제도까지 두어 중등교육을 마친 후에는 의무적으로 현장경험 특히 낙후지역에서의 人民의 실제 투쟁의 경험을 2년이상 갖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개방풍조와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를 절대 필수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또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體制가 가장 우월한 教育體制라고 강조하고 있어 이론과 실천을 결합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동을 신성시하는 관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하겠다.

북한과 중국의 또 하나의 구별되는 특성으로는 교양수단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학교의 역할 부분을 들 수 있다. 학교생활 시기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教育行政事業을 옹계 조직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과외활동(특별활동을 지칭함) 특히 정치조직 활동을 잘 指導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70 년대에 11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치원 높은 반부터 중등교육단계까지를 보편화한 실정이므로 전 인민의 교육수준을 고등교육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자주적인 思想意識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育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온 사회를 인텔리화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과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매우 진보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전인민 고등교육화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여러 한계로 인해 9 년간의 의무교육 수준까지만 계획하고 있어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토 면적, 인종 구성, 통치방식의 차이 그리고 국가투자정책의 우선순위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華民族 이외 56 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民族의 文化도 각

각 달라 획일적인 통치를 하기가 困難하다. 地方自治를 실시하고 소수민족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엄격히 비교하기가 곤란하지만 북한의 수준이 중국에 비해 크게 앞서지는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통계상으로 보아 중국의 1인당 GNP가 1986년 현재 27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도 그리 높은 편이 못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경제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등교육까지 의무화를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겨우 중학교까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國家投資政策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북한은 인민의 교육 즉 共產主義的 인간으로의 개조 사업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投資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Ⅳ. 사회주의 교육에서의 「인간개조 이론」의 위상

「인간개조 이론」은 과연 《인류 사상발전과 勞動階級の 혁명위업 수행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인가? 과연 이 책은 《노동계급과 黨에게 인간해방을 위한 위대한 科學的 강령이며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완벽한 이론》을 제시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불행하게도 부정적이다.

비록 이 책은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이상화 분위기가 사회주의 교육학(1975)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듯하나, 여전히 그 맹목적 이상화의 서술방식은 엄청나다. 즉 모든 내용의 서술의 논리가 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어구를 검은 고딕체로 간단하게 인용한후, ②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다음에 풀어나간다. ③ 물론 중간 중간에 필요하다면 김일성, 김정일의 어구가 다시 인용된다. 과연 科學的이고 이론적인 교육학적 원리의 서술에 왜 그토록 많은 김일성, 김정일의 인용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과도한 인용은 결국 「인간개조 이론」도 김일성의 개인적 능력과 思想을 돋보이게 하고, 그의 유일사상 체계의 합리화와 정당화의 한 방책으로 쓰여진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과연 이런 책이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社會主義, 共產主義 국가 전체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교육원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인간개조 이론」에 담겨있는 교육학적인 원리들은 얼마나 독특하며, 창의적인 것인가? 별로 독특한 공헌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人間改



造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논의를 다각적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에서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각적인 전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된 요소들을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시켜 混亂을 야기시킨 면도 많다. 예컨대, 인간 개조를 자주성, 창의성, 의식성의 확대라고 규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성과 조직성을 아울러 강조한다. 그간의 社會主義 敎育은 전통적으로 집단성과 조직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점차로 개성과 창의에 대한 강조가 필요케되어 왔다. 집단성과 조직성 등은 개성과 창의성에 대한 저해적 요소였다. 양측면을 동시에 함께 育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교육의 해묵은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과연 人間改造 이론은 이 해묵은 과제의 해결에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그렇지 못하다. 자주성과 창의성은 첫머리 서두에 제시되는 단순한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언급됨이 없다.

아울러 또하나 社會主義 敎育이 당면한 문제의 하나는 紅과 專의 우선성 여부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중국과 소련을 위시해서 사상성 위주(紅)에서 전문지식과 기술(專)의 강조로 옮겨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思想的 이데올로기에의 집착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조건의 실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보편화가 세계적 추세이다. 「인간개조 이론」에서는 그 점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상성의 강조라는 복고적 경향을 느끼게 한다. 사상성과 당성, 革命性, 계급의식의 고취를 여전히 敎育의 핵으로 규정하는 「인간개조 이론」은 탈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북쪽의 교육이 冷戰의 빙판에 놓여져 있음을 짐작

케한다. 세계적인 탈 冷戰의 흐름에 역류하는 북한의 《인간개조 리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인간화, 개방화, 민주화라는 세계적 보편 이념의 등장  
에 역행하는 듯한 논리를 가득담고 있다. 자유에 대한 언급의 부재, 黨  
과 共產主義 체계의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강요, 언론과 출판물  
에 대한 절대권의 행사, 주권자인 國民의 權利 인정보다는 계도해야 한  
다는 권위주의적 발상, 특정계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와 증오 및 비  
타협적 자세 등등은 바로 「인간개조 리론」이 담고 있는 原理的 낙후  
성을 보여준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계급의식과 계급혁명”의 아이디어  
를 포기한다고 선언한바 있고, 자본주의적 경영체제의 우월성을 중국의 고  
위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共產黨 단일체  
제가 부정되고 복수 정당제가 동구 공산권 국가에 도입되고 있다. 또 수  
십만이 광장에 모여 改革과 革新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이 허용되고 있  
다. 이런 때에 黨의 계획하에 일사불란하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黨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改造시키는 「인간개조 리론」이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져 모셔지는 곳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인간개조  
리론」은 북한 교육의 낙후성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인간의  
관리와 통제에서는 훌륭한 지침서일지 모르나 인간의 능력과 적성, 그리  
고 자유와 꿈을 마음껏 발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21세기 인  
류의 보편 이념에 비추어 보면 「인간개조 리론」은 시대에의 역류이며,  
시대 착오적인 발상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參 考 文 獻>

-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주류, 1988.
- 김상준, 북한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사회과학출판사편, 인간개조리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1985.
- 전용선, 북한정치사상의 연구, 대만:국립대만사범대학, 박사학위논문, 1988.
- 王章陵, 中共教育制度, 臺北:中正書局, 1980.
- 汪學文, 中共教育之理論與實際, 臺北:正中書局, 1979. ,
- \_\_\_\_\_, 中共教育評析, 中華民國教育部 教育研究委員會, 1987年7月.
- \_\_\_\_\_, 當前 中共教育改革之研究,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2年.
- \_\_\_\_\_, 當前 中共教育體制 改革之剖析, 中國大陸研究所, 第28卷, 第1期, 1985年7月.
- \_\_\_\_\_, 論析中共教育改革與四化建設之關係, 臺北:正中書局, 1986.
- 儲培君, 教育學, 泰州:江蘇教育出版社, 1986.
- 中國教育年鑑 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鑑, 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년판과 1988년판.
- 周祝瑛, “中共 高等教育 改革之研究(1977~1985)”, “國立政治大學 教育研究所 석사논문, 1985.
- \_\_\_\_\_, “現段階中共高等教育改革評析”, 「中國大陸研究」第28卷,

第 8 期 ( 1986. 2 ), 18 ~ 25 쪽

崔榮杓, “中共의 高等教育 改革動向”, 「韓國 教育」, 第 14 券, 第 1 號

( 1987. 9 ), 99 ~ 114 쪽.

\_\_\_\_\_, “中國의 成人高等教育 改革動向”, 「韓國 教育」, 第 15 券,

第 1 號 ( 1988. 9 ), 165 ~ 184 쪽.

\_\_\_\_\_, 中國 高等教育의 變遷”, 「大學 教育」, 34 號 ( 1988.7 ),

53 ~ 61 쪽.

\_\_\_\_\_, “中國 高等教育體制와 學生選拔管理·配定”, 「大學 教育」,

35 號 ( 1988. 9 ), 54 ~ 62 쪽.

\_\_\_\_\_, “中國 大學의 教育課程”, 「大學 教育」, 36 號 ( 1988.11 ),

44 ~ 53 쪽.

\_\_\_\_\_, “中國의 教育 上·中·下”, 교원복지신보, 1988년 9월 26일,

10월 3일, 10월 10일.

\_\_\_\_\_ ‘중국교육의 개혁동향과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88-1 공산권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115 ~ 136 쪽

\_\_\_\_\_의,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Chen, Theodore Hsien, *Chinese Education Since 1949, Academic and Revolutionary models*,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Chinese Education, A Journal of Translations*, N.Y.: M.E.

Sharpe Inc., Vol.XVIII, No.1-Vol.XXI, No.3, (1985-1988).

Hawkins, John N., *Education & Social Chang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York: Praeger Pub. 1983.

\_\_\_\_\_, 'Higher Education Alternatives in China: The Transition from Revolutionary to Post revolutionary Form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29, No.4, (No.1, 1985).

Hu, C.T. et al., 'Education in China,' *Comparative Education*, Vol.20, No.1, 1984.

Liu Bai, *Cultural Poli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is: UNESCO, 1983.

State Education Commissi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China (1984-198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40th Session Geneva, 1986.

\_\_\_\_\_,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China (1986-1988)*, Beijing, 1988.

World Bank, *CHINA: Long-term Development Issues and Options*,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 Press, 1985.

\_\_\_\_\_, *CHINA Issues and Prospects in Education*. Wash-  
ington, D.C.: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85.

---

「人間改造理論」에서 본  
北韓 共產主義 教育方法 分析

---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제 4 연구관실 )

인쇄소 : 양 동 문 화 사

---

